

경제위기 극복에 발벗고 나섰다

강임준 군산시장, 기획재정부 방문 현안사업 건의... 6개 사업 총 471억원 국비 지원 요청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용 및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 시장의 이번 기획재정부 방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장관이 지난달 19일 군산을 방문해 한국지엠 협력업체 현장에서 추진한 간담회 자리에서 주고받은 지원에 관한 부분을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김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라면 지금까지 방식과 절차를 벗어나 지원하고 싶다”며 “향후 애로 사항이 있을 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강 시장은 기재부 정보화예산 타당성 등 실무 관계자를 만나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6개 사업 총 471억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2019년 국가예산 반영 건의와 함께 정부 목적예비비 추가 지원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위기지역의 현실에 맞는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사업(100억원)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60억원) ▲이정도 노후여객선 고속차도선 대체건조(60억원) ▲소상공인 스마트냉장·냉동 저온창고 건립(50억원) ▲중소제조기업 핵심인력 고용유지 지원사업(51억원) ▲GM협력업체 컨소시엄 전기저상버스 부품개발(150억원) 등이다.

강임준 시장은 “지난달 군산시를 방문해 참담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기획재정부 실무관계자를 만나 현안사업 애로사항과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절실함을 전달했고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단 한건의 사업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활동을 시정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삼고 김관영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는 과탄위기의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목적예비비 추가 확보 및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야행’이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올해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한다.

‘군산야행’으로 놀러오세요

전시·거리 테마공연·플리마켓 등 다채

나들이 가기에 더할 나위 없는 10월의 어느 멋진 가을 밤, 군산의 밤거리에 역사와 문화의 향연이 또 다시 펼쳐진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특색 있는 군산민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야간형 문화관광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었던 ‘군산야행’이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을밤! 근대문화유산은 잠들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분포한 다양한 지역 문화재를 거점으로 조성된 문화유산 등불 거리를 거닐며, 전시·관람, 문화재 답사, 거리 테마공연, 플리마켓, 체험활동 등 5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진행되었던 전시 체험, 공연 프로그램 외에 70개

의 부스에서 지역 주민 및 상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 장터’, 문화재 현장에서 해설사에게 들으며 다양한 경험도 받는 ‘문화해설 스탬프투어’ 등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준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또한 10월의 군산야행은 주무대 기념식을 개최하지 않고 다양한 거리공연과 체험형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하고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시민들이 직접 행사를 주도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이를 통한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 사업 평가회

우수사례·현황 공유·토의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1일 농업인 교육관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주관으로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축산관련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가회는 올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서로 공유,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고 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냄새저감 투입기술 및 효과, 돈사 내 분진 및 냄새 물질 분석에 대한 현황 발표, 시범사업 추진 우수사례 및 현황 공유, 종합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축사 냄새저감 기술로서 돈사 외부에 바이

오퍼터와 안개분무 장치를 설치하고, 돈사 내부에는 미생물제제를 급여하고 살포하는 방법을 현장에 적용한 익산의 2개 농장 사례에 대한 중간 결과평가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 사업으로 양돈 5개 농장을 선정하고 컨설팅과 함께 바이오오퍼터, 안개분무시스템, 고액원심분리기, 액비저장조 미세폭기장치, 퇴비장 및 액비장 밀폐, 미생물제제 지원 등 악취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들을 지원하여 현장에 적용시켰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연속 시범사업으로 5개 농장에 투입된 기술들은 철저히 비교 분석 및 사후 평가하여 축사 악취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좋은 모델로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열어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공직사회의 청렴·신뢰성 회복 성실 신고한 공직자 보호

익산시가 지난달 28일 시청 홍보관에서 2018년 제1회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대한 내실화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 회복, 성실 신고한 선의의 공직자 보호,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열렸다.

재산등록 심사대상은 건축, 토목, 환경, 위생, 회계, 세무, 감사 등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370명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집중심사자 101명을 선정해 광주지방국세청 및 전북도에 의뢰하여 토지 및 건물 심사하였고,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예금, 보험, 증권 등

을 심사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101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앞서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자 10명에 대한 심사결과 승인 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한편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시의원, 공무원 등 위촉직 4명과 당연직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심사결과 처리,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됐다.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김정기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함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청소년상담센터, 인성교육 프로그램 ‘올바름’ 실시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0월부터 11월까지 40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올바름’을 심리극(역할극) 형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바름’은 모두를 뜻하는 ‘all’과 ‘바름’이 합쳐진 단어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기위 건강하고 멋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인성교육 프로그램 ‘올바름’은 자발성과 활동성 증진 활동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리빙 뉴스페이퍼 즉, 신문 또는 방송에 나온 사례들을 역할극적 방법으로 실현해보거나 재해석하는 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올바른 인성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간접체험 및 토론활동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처우개선 앞장

군산시는 업무 강도가 높은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관내 97개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647명에게 두 번째 복지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지수당은 지역 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2회 각각 6만5천원씩 지급된다.

지원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재 재직 중인 자 ▲시가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기준일까지 당해 시설에 1년 이상 연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앞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양현 복지관광과장은 “복지수당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3개소로 확대 운영

익산시가 택배기사를 만나지 않고 서도, 택배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마동행정복지센터와 영등도서관 2개소에 무인택배함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여성대상 범죄 예방과 1인 가구의 택배 수령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신동행정복지센터와 영등도서관 2개소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 운영해왔으며, 해마다 이용률이 증가해 올해만 이용실적이 9개월간 1,563건에 달하고 있다.

무인택배함은 이용 희망자가 물품을 신청할 때 배송지를 설치장소 무인택배함으로 지정하면, 택배기사가 해당 무인택배함에 물건을 넣었을 때

수령자에게 보관번호와 인증번호가 전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운영 중인 3개소 모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물품 보관 기간은 48시간이고 초과시 24시간마다 1천원의 보관료가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과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여성 단독세대주가 많은 지역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확대를 추진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올림픽차 요원 자격증 취득
	리프트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